

Our Broken Clock and the Bible: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anuary 11, 2024

Aloha MPC ‘Ohana,

The other day I was standing in our kitchen when I looked at the clock on the wall and realized it was broken. Its hands were frozen in place at about 8:40 or something like that.

Seeing that the clock was broken reminded me of the old saying, “Even a broken clock is right twice a day.”

Remembering that old saying, in turn, prompted me to think about the Bible (don’t try to follow the logic – remember, I was dropped on my head as a child).

More specifically, as I was standing there looking at our broken clock and thinking about the Bible, I found myself remembering a rather heated argument which I had recently seen on a Facebook page that I sometimes follow. It was an argument about the Bible.

On one side of the argument were comments posted by people which affirmed things like, “The Bible is God’s Holy Word,” etc.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argument were posts which rejected any notion that the Bible might be inspired by God at all. I believe one comment even referred to it as “a book of ancient mumbo-jumbo” or something every bit as denigrating as that.

Notwithstanding that comment, I chose not to enter the fray myself on either side, as one of my own New Year’s resolutions is not to get into arguments with total strangers on Facebook (eleven days so far, which surely must mean that some sort of sobriety medallion is in my future).

But still, reading those posts did get me thinking. *On what sort of grounds do we Christians claim the Bible to be God’s Word? And how can we know that it isn’t just “a book of ancient mumbo-jumbo,” after all?*

Well, standing in the kitchen looking at our broken clock, I decided to do a little thought experiment about that. Like this:

First, I decided to *pretend* (for the sake of argument) that I didn’t believe in God, and that I was therefore going to assume that the Bible was a purely human invention. Would it follow from that premise that, therefore, the Bible is nothing but “a book of ancient mumbo-jumbo?”

Well, if even a broken clock is right twice a day, then it would stand to reason that even “a book of ancient mumbo-jumbo” might also occasionally say something true (if only in spite of itself). In fact, maybe it would do so at about roughly the same frequency as a broken clock gets the time right.

The calculation for that is this: a broken clock gets the time right two minutes per day (say at 8:40 am and again at 8:40 pm). There are a total of 1440

minutes in a day. So, therefore, a broken clock is right 0.13889% of the time. Or to put it another way, a broken clock is wrong 99.8611% of the time.

So, if the Bible were as worthless as a broken clock, then the math would seem to suggest that it might only say something true (in spite of itself) 0.13889% of the time as well. And the other 99.8611% of the time, the Bible would be wrong about (nearly) everything.

But that then begs the question: *has that been my own experience?* As I've read the Bible over the course of my life, have I only found what it says to be true 0.13889% of the time?

Well, no, that hasn't been my experience at all. To the contrary, based only upon my own experience and without positing any sort of supernatural element (yet), I can say that as a reader of the Bible, I have found it to say something true vastly more often than a mere 0.13889% of the time. All of which suggests to me that, whatever else it might be, the Bible is clearly far more accurate and far more reliable than a broken clock. So, I can't just dismiss it, then, as nothing but "mumbo-jumbo."

But maybe that's just because the Bible isn't garbage. Maybe it's a classical piece of literature (like Shakespeare or something). In other words, maybe the Bible contains the wisdom which it does in as high a concentration as it does because it is a monument to the genius of humanity. No God needed, in other words; the Bible was just written by some human being or human beings who was/were as gifted as Shakespeare (or Tolstoy or Homer or Melville, etc., etc.).

But what about Shakespeare *and* Tolstoy *and* Homer *and* Melville *and* every other brilliant writer, thinker, poet, artist, philosopher, *and* sage who ever lived *combined*? What if the Bible contained a wisdom of that vast a scope and magnitude?

Well, again, based upon my own experience, I think the Bible *does* in fact express a wisdom of that order. Because I've never read any pearl of wisdom anywhere else in all the great literature of the world which I can't also find somewhere in the Bible. Or to put it another way, the wisdom which I find in the Bible seems to be a wisdom which comes from a Mind so vast as to include (and exceed) the entire sum total of all human wisdom from all of human history. A Mind, in other words, which is bigger than the "mind of mankind," so to speak.

So where does that leave me? Well, it leaves me unable to dismiss the Bible merely as "a book of ancient mumbo-jumbo." It leaves me unable, too, to say that the Bible is simply the product of some human genius (or even several such geniuses). Really, it doesn't seem to leave me with any other option except to see the Bible as expressing some sort of Mind which is bigger than the collective mind of all humankind.

So what sort of Mind might that be, then? Whose Mind might be said to transcend all the wisdom of this world, and then some?

I'll let you search the dictionary for an answer of your own choosing to that question. But speaking for myself, I'm going to use the word "God" for a Mind like that.

And so, if the Bible is the product of the Mind of God, which makes sense to me, then it also makes sense to me to call the Bible *the Word* of that same God. Because that only stands to reason, right?

Me ke aloha,

Pastor Ron

우리의 고장난 시계와 성경: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어느 날 부엌에 서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다가 그것이 고장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손은 8시 40분쯤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보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그 옛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논리를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머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기 서서 고장난 시계를 바라보며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가끔 팔로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최근 보았던 다소 열띤 논쟁을 기억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의 한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등과 같은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다른 쪽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어떠한 개념도 거부하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는 한 댓글에서 그것을 “고대 멍청한 책”이라고 언급했거나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의 새해 결심 중 하나가 Facebook의 전혀 낯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의 싸움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달은 내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게시물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_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단지 “고대의 엉뚱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쎄, 부엌에 서서 고장난 시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 작은 사고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나는 (논쟁을 위해) 내가 신을 믿지 않는 _척하기_ 로 결정했고, 따라서 성경은 순전히 인간이 발명한 것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대의 허황된 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글쎄요,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에 두 번씩 맞는다면, “고대의 엉터리 책”이라도 때때로 (그 자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어쩌면 고장난 시계가 시간을 맞추는 것과 거의 같은 빈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분씩 시간을 맞춥니다(예를 들어 오전 8시 40분과 오후 8시 40분).

하루는 총 1440분입니다.

따라서 고장난 시계는 0.13889%의 시간에 맞습니다.

다시 말해, 고장난 시계는 99.8611%의 시간 동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고장난 시계만큼 무가치하다면, 수학적으로 성경이 (그 자체에도 불구하고) 0.13889%의 확률로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8611%의 경우에는 성경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_그것이 나 자신의 경험이었나요?_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0.13889%만 사실이라고 발견했습니까?

글쎄, 아니, 그건 내 경험이 전혀 아니었어.

그와는 반대로, (아직)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요소도 가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나는 성경 독자로서 성경이 단지 0.13889%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이 모든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고장난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성경이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전 문학 작품(셰익스피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류의 천재성에 대한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농도로 행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셰익스피어(또는 톨스토이, 호머, 멜빌 등)만큼 재능이 있는 일부 인간이나 인간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_와_ 톨스토이 _,_ 호머 _와_ 멜빌 _, 그리고 _함께_ 살았던 다른 모든 뛰어난 작가, 사상가, 시인, 예술가, 철학자 _,_ 현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토록 광대한 범위와 규모의 지혜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다시 한 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저는 성경이 실제로 그러한 질서의 지혜를 표현하고 _있다고_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문학 중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의 진주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경에서 찾은 지혜는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인간 지혜의 전체 합계를 포함(그리고 초과)할 정도로 광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글썄요, 그래서 나는 성서를 단순히 “고대의 허황된 책”으로 일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로서는 성경이 단지 어떤 천재적인 인간(혹은 그러한 천재 몇 명)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모든 인류의 집단적 마음보다 더 큰 일종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한 답을 사전에서 검색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_하나님의_ 마음의 산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면,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의 _말씀이라고_ 부르는 것도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이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 알로하,

론 목사